삼성, 美 20조 투자 결정 '초읽기'… 다시 '초격차' 시동

외신 등서 美텍사스 투자임박 전해
EUV 등 최첨단 파운드리설비 도입
5나노 공정제품 양산 가능성 높아
JY, 반도체 초격차 광폭행보 돌입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삼성전자 뉴스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택사업장 EUV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반도체 사업 '초격차' 노력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주를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 건설지로 거의 확정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윌리엄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한 이유는 전기와 물 공급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보조금 등 혜택도 컸다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 오스틴팹은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혹한에 따른 전기와 물공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춰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미국 현지 파운드리 생산 기지 증설을 논의해왔다. 올 초에는 170억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텍사스주와 뉴욕 등 현지 정부와 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며 최종 결정을 늦춰왔었다.

삼성전자의 새 공장은 최첨단 파운드리 설비를 갖추게될 전망이다. EUV 장비를 도입해 7나노에서 5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2024년 말부터는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머지 않아 투자 계획을 확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꾸준히 현지 생산 기지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데다가, 파운드리 시장 경쟁도 심화하면서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오스틴팹뿐 아니라 대만 TSMC도 현지 가뭄으로 생산난에 빠진 적이 있고, EUV 장비 대거 도입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전력과 용수 공급 안정성이 높은 지역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광폭 행보에 돌입했다. 이미 가석방 직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평택캠퍼스에 53층 규모 통합 사무동 건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 체제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세대 10나노(1a) D램도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부터 확대될 DDR5 기술도 경쟁사 대비 한 단계 앞서있다는 전언. 인공지능을 메모리에 활용하는 HBM-PIM 등 기술까지 완성하면서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베이비부머 인생 2막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 54억 푼다

고령자 채용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지원
고용유지 장려금 규모 늘리고
직업훈련 노동전환지원금 마련

중소기업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용을 더 늘릴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의 정부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주는 장려금 대상도 내년 3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실업과 은퇴에 대비, 고령자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고령자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고용 장려금 총 5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 주는 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중장년, 베이비붐 세대 중 직업훈련 대상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훈련을 통해 직업을 바꾸면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도 기존 중장년 여성에서 전체 중장년 구직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장년층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퇴직한 전문인력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도 현장 코칭 등 숙련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퇴직 이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퇴직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1면 '베일 벗은 제네시스'서 계속

얼굴인식 2명까지 가능… 6일부터 계약

또 제네시스는 GV60에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디지털 키 2 등 사람과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한층 차별화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한다.

페이스 커넥트는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도어 핸들 터치 후 차량 B 필러에 위치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GV60에 적용한 페이스 커넥트와 지문 인식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경우, 키 없이 운전자의 생체 정보만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차량 경험을 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GV60의 국내 계약은 10월 6일부터다. /양성운 기자 ysw@